

## ■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연방제 논의 앞서 기본법부터 설정을”

한라일보·제주와미래연구원·제주의소리 공동기획  
 ‘제주, 연방제 수준 특별자치 가능한가?’ 주제 토론  
 “분법·비전 차원에서 도민 삶 입각 새 방향 모색해야”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추진 과정에서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를 논하기 앞서 특별자치 설치와 관련한 기본법을 우선 설정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담은 특별법의 비전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제주의소리는 공동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라는 대주제 아래 세 번째 소주제로 ‘연방제 수준 특별자치, 가능한가?’를 다뤘다.

>>관련기사 7면

토론은 지난 15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운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 겸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를 거론하기에 앞서 분법과 비전 차원에서 도민의 삶에 입각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강창민 실장은 “실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에서 연방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실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주도에 그 정도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민들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수준을 가진 상태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하는 게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생각해 야 한다”며 “헌법적 지위,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실에 맞는 단어를 쓰고 과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 “법체계의 경우 분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별자치 설치와

관련된 기본법이 먼저 필요하고, 제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비전을 새로 담아낸 후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되돌아보면서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영훈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자체, 즉 단일 광역 행정체제가 오히려 제주사회에 갈등이 격화되는 문제를 야기한 측면도 있다”며 “시군별로 지역 갈등현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갈등 해소 방법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팔색조의 번식** 멸종위기종 팔색조가 기후변화로 번식이 빨라지면서 5월에 산란한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서귀포연구시험원 일대 공동조사에서 팔색조의 번식 시기가 예년보다 1주일 정도 앞당겨진 모습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팔색조는 지난 5월 29일 전후에 첫 알을 낳았고 14일간 포란한 후 6월 17일쯤 부화했다. 사진=제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공

## 제주4·3 명예회복 특위 구성 ‘시동’

정부, 국회에 4·3위원회 여야 각 2명씩 추천 의뢰  
 여야 원내대표-국회의장 면담서 위원회 구성 합의

여야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에 참여할 위원 추천에 나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에서 4·3위원회 여야 위원 구성을 위한 특위 가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4·3 위원 구성을 위해 양당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여야의 제주4·3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지난 24일 개정 시행된 제주4·3특별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중 4명(여야 교섭단체 각 2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추천위원 명단을 오는 7월 16일까지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국회=부미한기자 bu8385@ihalla.com

## 진정한 자치분권 위해 머리 맞댄다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도·도의회 다양한 기념행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공동주최한다.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2006년) 15주년이 되는 해이자, 지방의회 부활(1991년) 30주년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과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 내달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

범 15주년과 민선 6·7기 7주년 기념행사가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다.

오는 2일에는 서울특별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향후 고도의 자치권 확보 전략이 중점 논의된다.

오는 5일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역대 도의회 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 부활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퍼포먼스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 팽생이모자반 제주 해역서 자취 감춰 제주도, 7월 1일부로 비상대응체제 해제

역대 최대 규모로 제주에 몰려온 팽생이모자반이 제주 해역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제주도가 내달 1일부로 비상대응체제를 해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중순 이후 중구발 팽생이모자반이 유입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초 팽생이모자반이 유입되자 지난 1월 19일부터 국립수산물학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팽생이모자반 처리 대책본부’를 운영해 왔다.

제주도가 주변 해역에서 팽생이모자반 예찰을 실시한 결과, 수은 상승 등의 영향으로 5월 중순 이후부터 유입량이 없어져 최근 도 주변 해역에서 거의 관측되지 않고 있다.

올해 중국 북부지역인 산둥반도 연안 일대의 팽생이모자반이 북서 계절풍을 타고 1~2월 집중 유입된 후 3월경부터 산발적 양상을 보이던 5월부터 소강상태를 보인 것이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올해 수거된 팽생이모자반은 제주시 9335.5t, 서귀포시 420t 등 총 9788.5t으로 파악

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수거된 5185t을 크게 웃도는 양이다.

이로 인해 팽생이모자반 대부분이 몰린 제주시의 경우는 연초부터 처리난을 겪어야 했다. 긴급 예산 약 6700만원을 투입해 수거에 나섰지만, 팽생이모자반에 해양쓰레기까지 섞이면서 애를 먹었다.

이같은 처리난은 각 읍·면·동 자생단체와 바다환경지킴이가 대부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환경지킴이와 자원봉사자 등 인력 총 2300여명과 장비 322대를 투입해 육상(9361t)과 해상(395t)에서 총 9756t의 팽생이모자반을 수거했다.

수거된 팽생이모자반 중 9700여t(수거량의 99%) 가량은 퇴비 활용을 희망하는 39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팽생이모자반이 농가 퇴비로 유용하게 활용되면서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 시 예상되는 처리비용 약 39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강다혜기자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260**  
 28일 17시 기준

##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 ('21.9.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기준

■ 적용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용(갑II·을), 일반용(갑II·을), 교육용(을), 주택용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요금,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적용고객

■ 주요내용  
 전력수요가 높은 늦은 오후 및 저녁 시간을 최대부하시간대로 변경 (요금단가는 변동없음)

계절 시간대	< 현행 >		전 계절
	봄·가을철 (3-5, 9-10월) 여름철 (6-8월)	겨울철 (11-2월)	
경부하	23:00~09:00	23:00~09:00	22:00~08:00
중간부하	09:00~10:00	09:00~10:00	08:00~16:00
	12:00~13:00	12:00~17:00	
	17:00~23:00	20:00~22:00	
최대부하	10:00~12:00	10:00~12:00	16:00~22:00
	13:00~17:00	17:00~20:00 22:00~23:00	

### 주택용 계절별 시간대별 선택요금제

■ 적용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의 주거용 주택용전력 사용고객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존 누진제 또는 주택용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중 선택 가능

■ 주요내용  
 시간대 구분기준 변경(2개 시간대 → 3개 시간대) 및 시행시기 조정('21.7월분 → '21.9.1)

구분	< 현행 >		< 변경 >		
	전력량요금(원/kWh)		전력량요금(원/kWh)		
	봄·가을철 (3-5, 9-10월)	여름·겨울철 (6-8, 11-2월)	구분	봄·가을철 (3-5, 9-10월)	여름·겨울철 (6-8, 11-2월)
기타시간대 21:00~09:00	94.1	107.0	경부하 22:00~08:00	94.1	107.0
수요시간대 09:00~21:00	140.7	188.8	중간부하 08:00~16:00	122.1	153.0
			최대부하 16:00~22:00	140.7	188.8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